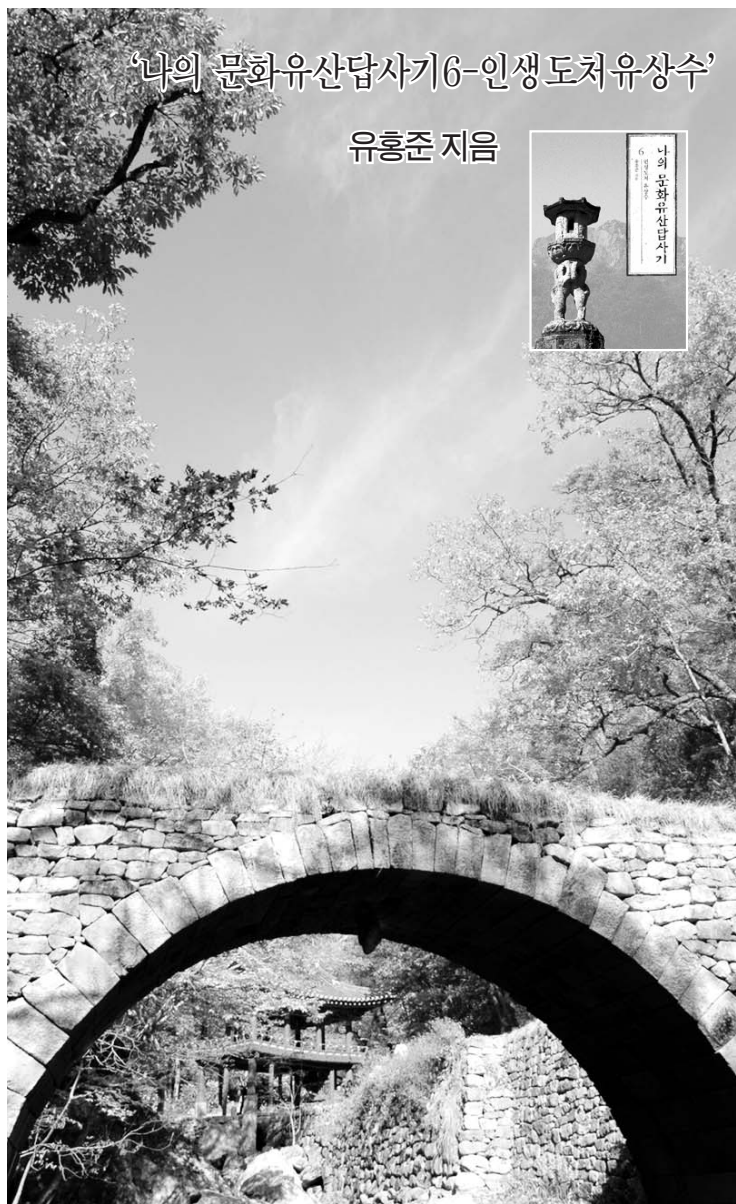


## 한국의 깊은 역사 담은 여섯번째 여정



순천 선암사는 단아한 산 속 절집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6-인생도처유상수’

유홍준 지음



한국에 대해 물어오는 외국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때는,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열린 1995년. 당시 카미셔너로 활동했던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명지대 교수를 함께 일한 4명의 외국인 카미셔너들과 여행을 계획한다.

한국을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들 외국인들은 군부대와 119 대원까지 동원해 전시를 강행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연발했다. 유 교수가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한적한 순천의 선암사였다.

유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제6권에 해당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인생도처유상수’를 펴냈다.

1993년 제1권 ‘남도답사 일번지’로 시작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는 인문서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하며 전국적인 답사 열풍을 몰고 왔다. 지금까지 국내권 세 권과 북한권 두 권이 모두 260만 부가량 판매됐다.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青山)’에서 따온 책의 제목은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수한 상수(上手)들이 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유 정장이 외국인들과 선암사를 먼저 찾은 것은 ‘깊은 산 속의 깊은 절’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와 함께 차를 탄 외국인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넓은 눈을 보며

“저게 뭐예요?”라며 감탄했다. 산 굽이 따라 펼쳐진 눈에 피어난 누런 벼는 잘 정돈된 유럽의 정원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눈이다”고 정의했다. 또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우리의 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깊은 산’이다”고 외국인에게 소개했다.

이들 일행은 선암사의 승선교와 강선루를 거닐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깊은 산 속 깊은 절’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한다.

책에는 청장 재직시절의 경험을 담은 경북궁 답사기를 비롯해 해마다 저자가 퇴임 후 터를 잡은 제2의 고향 부여 등 유 교수가 인연이 깊은 곳의 이야기도 담겼다.

또 경북궁 근정전 앞뜰의 박석(薄石)의 가치를 알아낸 경북궁 관리소장이나 어려운 불나물을 줄줄 꿴고 있는 무량사 사하촌 할머니들과 같은 숨은 ‘문화 고수’들도 많이 등장한다.

“인생은 맥주병 위에 떠 있는 빈 배란 말이시”

제1회광주비엔날레의 대상작 최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감상하던 시골의 한 촌부가 남긴 이 말에는 그가 책을 통해 강조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문화유산답사의 길을 보여준다. <창비·1만6500원>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예술감독 승효상의 서재는 날

##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들의 서재를 들여다본다

‘지식인의 서재’

한정원 지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공간 중의 하나가 바로 ‘나만의 서재’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남의 서재를 한눈에 들여다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들의 서재라면.

14년 경력의 방송작가 한정원씨가 1년여간 그들을 찾아가 인터뷰한 글을 모아 ‘지식인의 서재-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의 책이 되었다’를 펴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인 조국 법대 교수의 서재를 방문하면 붉은 소파와 웃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여대생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이 눈에 띈다. 서재에서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각종 시집들이다.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예술감독 승효상의 서재는 날

카로운 독서 본능을 자극하는 곳이고, 영화감독 장진의 서재는 영감과 기억의 공간이다.

그밖에 교보문고 대표 김성룡,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 인기가 높은 조윤범,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한국 최초의 북 디자이너 정병규, 국회의원 김진애, 미술 관련 글을 쓰는 이주현, 시민운동가 박원순 씨 등 모두 15명의 서재를 만날 수 있다.

각 인물과의 인터뷰 뒤에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 등 자신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줬던 책 목록을 추천 이유와 함께 실었다.

<행성·B입새·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욕망의 공간... 보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가치

‘백화점-그리고 사물·세계·사람’

조경란 지음



짧은 소설가 조경란(42)씨가 백화점을 소재로 한, 독특한 문화 에세이집을 펴냈다. 제목 역시 ‘백화점-그리고 사물·세계·사람’이다. 현대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공간인 백화점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일상을 추적해온 책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 요소와 함께 사물·세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책은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부터 지상 10층 직원전용식당에 이르기까지 가히 ‘글로벌 백화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의 경험 이 주를 이루지만 문화 에세이인 탓에 사회·문화적 공간에 대한 탐색도 엿보인다. 작가는 백화점의 각 층을 점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의 사람과 사물의 모습을 포

착, 그것이 어떻게 갈등하며 화해하는지를 묘사한다.

작가는 백화점의 역사와 함께 매장 배치와 조명, 음악, 디스플레이 등 마케팅의 요소를 세밀하게 읽어간다. 더 나아가 작가는 일반인들은 눈길을 주지 않는 물품보관소, 구두수선실, 의류수선실, 짐배실, 직원전용식당 등을 취재하면서 ‘일과 사람에 대한 예의’를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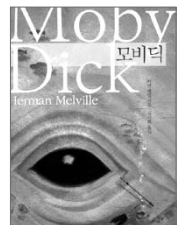
조씨는 ‘작가의 말’에서 “보는 것의 기쁨, 보는 것의 고통, 보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며 “두려움이나 일상의 남부름에 대해 쓴 대가 많아도 그제껏 부처님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준규씨의 사실적인 삽화도 글맛을 돋군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명상

‘모비 딕’

허먼 멜빌 지음



포경선을 탄 경험이 있는 특이한 이력의 작가 허먼 멜빌(1819~1891년)의 ‘모비 딕’이 번역·출간됐다. 지난해 아베트 클래식 시리즈의 한 권으로 일러스트판이 출간된 이후, 새롭게 보급판으로 선보인 것이다.

작가의 체험과 연구, 고래와 포경에 대한 갖가지 지식이 총망라된 독특한 형식의 소설은 출간 당시에는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지만 작가가 죽고난 30년 후 재평가되기 시작했

고, 오늘날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추앙되고 있다.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소설은 포경선 ‘피쿼드호’의 에이해브 선장과 흰 고래 모비 딕의 대결이 근간을 이루지만 인간과 자연, 우주에 대한 철학적 명상들이 가득하다.

인간의 파과 충동, 선과 악의 갈등,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정신·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자존심도 던져버린 그들의 연애편지

‘예술가와 위인들의...’

조은경 편역



모차르트, 베토벤, 괴테, 톨스토이, 나폴레옹 등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 59인의 살아생전 그들이 사랑했던 연인과 주고 받았던 연애편지들을 모아 엮은 ‘예술가와 위인들의 연애편지’가 출간됐다.

프리랜서 번역가 조은경씨가 편역한 편지를 통해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술가와 위인들의 숨겨진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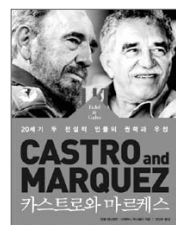
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던져버리는 모습, 사랑과 예술사이에 갈등하는 모습, 사랑하는 이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예술적 영감을 얻고 회열하는 모습 등을 담은 편지들을 보며 예술과 사랑이 태어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사랑의 꿈을 좇아 위해 쓰는 일이 사라진 오늘날이지만, 솔직함이 묻어나는 연애편지는 현대인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누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두 전설적 인물의 우정에 얽힌 뒷 이야기

‘카스트로와 마르케스...’

앙헬 에스테판·스테파니 파니첼리 지음



쿠바 혁명 이후 52년간 장기집권한 중남미의 붉은 별 피델 카스트로(85), 1982년 ‘백 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라틴문화의 신화가 된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84). 이 두 사람의 40년에 걸친 우정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번역·출간된 앙헬 에스테판과 스테파니 파니첼리의 ‘카스트로와 마르케스-20세기 두 전설적 인물의 권력과 우정’은 이 두 전설적 인물의 우정에 얽힌 뒷 이야기를 꼼꼼히 파헤치고 있다. 저자들은 두 사람의 우정에는 순수한 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권력의 필요에 의한 것이 근저에 있다고 본다. 마르케스는 ‘축장의 가을’ 같은 작품에서 권력자, 독

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만큼 권력에 대한 지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 그는 권력자들을 비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해 동경하는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피델에게는 자신의 혁명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쿠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해줄 다재다능한 지식인이 필요했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마르케스였다는 것이다.

카리브 지역 권력층의 막후와 파나마 운하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 니카라과 좌익 게릴라인 산디니스타의 탄생 과정과 그 활약상 등 역사적 사건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예문·1만4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간

▲2009년 5월=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그의 검찰 소환과 죽음을 근거리에서 목격했던 KBS 김정은 기자가 그때 사건의 숨겨진 실체를 들춰냈다. 노 대통령의 측근(문재인 변호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부터 정치적으로 이들과 상이한 입장의 논객(조갑제 전 원간조선 편집장, 전원재 변호사)까지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진지한 고민을 던진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코끼리는 아프다=저명한 동물행동학자이자 심리학자인 G.A. 브래드쇼가 코끼리의 입장에서 코끼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코끼리 심리서’이다. 인간의 밀렵으로 인해 코끼리가 생존의 위기를 맞은 이야기와 감금된 코끼리의 심리상태를 안타깝게 그렸다. 코끼리를 돕기 위한 열 가지 행동지침도 담았다. <현암사·1만8000원>

▲컴백홈=황시운(35)씨의 제4회 창비장편소설상 수상작.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여고생이 언젠가 자신의 이상인 서태지와 함께 달에 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재밌는 설정 뒤에 극심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 작가의 씩씩한 시선이 느껴진다. 자기비하를 넘어서 괴물이 된 자신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솔직한 시선, 심대들이 가진 일탈충동과 그에 동반된 불안을 묘사하는 생기



있는 언어가 돋보인다. <창비·1만1000원>

▲크리티컬 매스=방송인 백지연씨가 2년간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담을 모아 엮은 에세이집. ‘크리티컬 매스’는 임계질량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나 양을 의미한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시골의사’ 박경철, 음악감독 박칼린 등 100명의 인물을 인터뷰한 백씨는 책에서 이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 쌓아야 할 훈련과 노력, 인내의 양’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알마·1만3000원>

▲가르치다란 것은=사회 곳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51명의 선생님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뿐 아니라 예술을 지도하는 사람들, 여성수감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들, 기업가와 정치가의 컨설턴트들까지 다양한 인물이 포함됐다. 30년 경력의 교사인 저자 빌 스무트씨는 이들을부터 참된 교육법과 교육자의 길을 배운다고 말한다. <이매진·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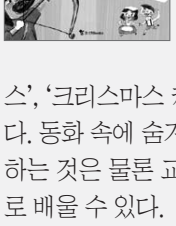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식사 후=일본작가 히가시사와 도쿠야의 신작 추리물.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신분 숨기고 형사로 일하는 여주인공 레이코가 까칠한 독실한 집사와 함께 미궁의 살인사건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이다. 독특한 캐릭터와 유머 가득한 미스터리로 일본 출간 7개월 만에 1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1세기북스·1만2500원>



▲넬슨 만델라-무지개 나라 아프리카를 꿈꾸다=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그림책 전기이다. 아프리카가 초연에서 뛰어난 소년에게 세계적 평화와 용기의 상징이 되기까지, 90년이 넘는 시간을 아름다운 그림과 글로 엮었다. <문학동네·1만2000원>

▲빨강 사과 하나=터키 작가 페리칸 오달의 그림책. 노이 매달린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 도끼를 도와주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사과를 따기 위해 처음에는 토끼가, 다음에는 토끼와 쥐가, 그 다음으로는 토끼와 쥐와 여우가, 또 다음으로 토끼와 쥐와 곰이 지혜와 힘과 키를 합친다.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동물 친구들이 엮어 가는 이야기를 통해 친구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미래아이·9000원>

▲잃어버린 일기장=창비의 ‘좋은 어린이책’ 대상 수상작으로 전성현씨의 작품이다. 한 친구의 일기장을 네 아이가 몰래 읽고 글까지 쓰게 되면서 글쓰기를 통해 자기 마음을 치유



해가는 이야기다. 처지와 생각이 다른 다섯 아이는 각자의 삶과 고민, 아픔에 만 집중하다가 공통된 글 쓰기 장에서 아픔을 해소한다. <창비·9500원>

▲초등 필수 수학동화=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명작과 신화 속 수학 이야기를 통해 수학과 친해지도록 했다. 초등 수학의 기본 영역인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등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동화로 접할 수 있다. 동화 속에 숨겨진 수학 원리를 퀴즈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 속 개념 원리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다. <조선Books·1만3000원>

▲평화란 어떤 길까?=한·중·일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 제3권. 일본 작가 하마다 게이코씨가 평화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간결한 문장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소박하지만 절실한 평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야오홍씨가 쓰고 그린 제4권 ‘경극이 사라진 날’도 함께 나왔다. <사계절·9800원>

## 어린이 책꽂이